

곡성군 관광정책 역량 전국 최상위권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
2회 연속 최우수 1등급
관광공사 7월 걷기 여행길
섬진강 들레길 전남 유일 선정



강과 산, 철길이 어우러진 섬진강 들레길이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7월 걷기 여행길로 선정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곡성군의 관광정책이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2월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지역별 관광발전지수 표준모형을 분석해 실시한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 관광정책 역량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은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해 지역관광발전지수 표준모형을 활용, 관광 수용력과 관광소비력, 관광정책 역량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지자체 관광발전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곡성군은 전반적인 관광정책 사업과 관

광분야 인적 역량,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관광정책 역량 부문 1등급을 차지했다. 군은 주민주도 지역관광과 계절별 맞춤형 여행상품인 '곡성한바위'와 전국 투어

단 유치를 통한 곡성 여행 '곡성 자전거 투어'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언론 매체로의 곡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7월 걷기 여행길로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곡

성 섬진강 들레길이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05코스 비둘기강 순환코스 등 여덟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6곳을 발표했다.

곡성에 살았던 명장 마천목 장군의 이름을 따 마천목 장군길로도 불리는 섬진강 들레길은 섬진강 자락을 따라 강변길과 숲길이 어우러진 곡성을 대표하는 걷기 명소이다.

섬진강가차마을에서 압록유원지까지 총 15km에 이르는 길을 걷다보면 섬진강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침곡역과 섬진강 출렁다리와 섬진강 천문대가 있는 가정역을 지난다. 이는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단조로울 수 있는 걷기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수요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 갑재민속전시관 내부.

고흥 두원면에 갑재민속전시관 문 열어

생활유물 3600점 전시

고흥군 두원면 옛 운대초등학교에 들어선 갑재민속전시관은 1만3000㎡ 부지에 5개의 전시실과 체험실, 관리동, 공원 등을 갖췄다. 민속전시관은 유물 기증자인 이기재(57)씨의 호인 '갑재'에서 이름을 따왔다. 고흥에서 폐교를 개조해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5월 근·현대 생

활유물 3600여점을 고흥군에 기증했다. 교사인 이씨는 전국을 돌며 취미로 다양한 생활유물 수집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기증한 유물은 농기구의 일종인 품로를 비롯해 베틀, 고문서, 가구, 책결상, 교과서 등으로 고흥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갑재민속전시관은 생활유물 전시와 함께 전통 민속놀이, 농기구·다도·염색 체험 프로그램과 잊혀가는 고흥의 근·현대 생활문화에 대한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보건의료원 보건 서비스 향상 소양교육

보건소 직원 등 80여명 대상
기본자세·역할...역량 높이기



구례군보건의료원은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보건의료원은 최근 보건의료원 다목적실에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서비스 제공 등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의료원은 의료 및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보건행정에 능동적인 대처와 보건향상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기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보건 의료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역할, 이미지 컨설팅을 통한 친절함 갖주기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례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공공보건 기관의 역할 증대를 통해 건강증진을 실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주민증 발급

보성군이 전자지문등록 스캐너를 도입해 주민등록증 발급에 나섰다. 보성군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때 필요한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편의를 위해 최근 전자지문등록 스캐너를 보성읍과 별교읍 2개소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문등록은 대상자의 손가락에 흑색 잉크를 바른 뒤 종이 신청서에 지문을

등록한 후 스캐너에 올려놓은 뒤 스캔을 하면 주민등록 시스템에 지문이미지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군은 행정효율성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자지문등록 스캐너를 내년부터 군 전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지문등록은 대상자의 손가락에 흑색 잉크를 바른 뒤 종이 신청서에 지문을

직접 찍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운영으로 공무원과 대상자 간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없애고 업무 편리성과 절차 간소화 등 선진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 종이신청서는 읍면사무소·파출소·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5단계로 송부됐으나 전자지문등록은 읍면사무소에서 경찰청으로 즉시 전송됨에 따라 자료 분실을 막고 업무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12월까지 정서 치유의 시간 제공하고 환자 돌봄 교육

고흥군이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헤어림'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원 및 실질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 및 사회적 부담감이 크며,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교육과 경험 부족으로 가족의 부담이 악화되는 실정에서 고흥군 보건소가 이를 관리, 지원하는 의도에서 '헤어림'을 운영하게 됐다. 치매환자의 단계별 증상에 따른 대처법 교육, 우울증 검사 후 전문의와 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 원예, 음악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족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치매환자 돌봄 능력을 향상 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치매환자 가족끼리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가족의 심리적 부담 덜어 줄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군 주민소득기금 10개 농가에 5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 의결

곡성군은 최근 하반기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곡성군주민소득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심남식)를 개최하고 총 10개 농가에 5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대상은 농지 구입, 축사 개·보수, 농산물 보관창고 사업 등이며 시설 운영 자금은 사업 완료 후에 개인 담보 능력에 따른 융자 실행 가능범위 내에서 농협은행곡성군지부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한다. 군은 앞선 상반기에 24개 농가에 총 16억원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확정해 추진 중에 있다. 심남식 곡성군 부군수는 "군민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지원돼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향상을 기대한다"며 "선정된 융자 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